

盧대통령 8·15 경축사 내용

# “6자회담 성공 이끄는 정상회담 될 것”

### “일방 지원 아닌 남북 윈-윈 경험 구축” “정치권 남북정상회담 전략적 이용 안배”

노무현 대통령의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초점은 오는 28~3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맞춰졌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사(大事)를 앞둔 중차대한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연설의 상당 분량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경축사에서 포함되곤 했던 일본 지도층의 과거사 인식 비판이나 한-일관계 해법은 이날 거론되지 않았다.

우선 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그동안 북핵 문제로 야기된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한단계 진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나서자는 구상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회담을 새로운 선언 등을 이끌어 내 이벤트화하기 보다는 그동안 남북이 약속했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강조한 점은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 남북경협의 제도화, 구조화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조 수립에 나서자는 노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과거 일방적 대북지원 형식의 경험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남북이 ‘윈-윈’하는 상생구조형 경험모델을 구축,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의 진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경축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3대 정책인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을 축으로 한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참여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아왔던 북핵 문제에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인식을 개진했다.

상호주의를 배제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4년간 사회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을 유지한 끝에 북핵 문제도 해결의 틀을 마련했고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도 열게 됐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국민 당부 메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지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선분은 기대나 무작정 비판에서 벗어나 한반도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합심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여기에 정치권에 대해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략적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盧-金 ‘깜짝 이벤트’ 연출?

### 경의선 경유...개성공단 공동 시찰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함께 개성공단을 둘러보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개성을 경유하는 경의선 도로를 이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 정상은 개성공단을 동반시찰하는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예상을 깨고 순안공항까지 마중나왔던 파격 행보를 떠올리면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다.

남북이 모두 개성공단 성공에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쏟고 있지만 두 정상은 아직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없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개성공단을 찾을 때도 된 셈이다.

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도 남북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모델의 상징인 개성공단 방문을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 대치의 최전선이었던 개성이 평화의 현장으로 바뀌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달라진 남북관계의 오

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욕심도 느껴진다.

남북 정상은 동시 시찰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일부 있다.

북한 대남라인의 실세이자 정상회담 준비접촉 북측단장을 맡은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지난 6월 초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북측은 21~30일 예정된 개성공단 방문행사를 모두 9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지난 13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개성공단 동시시찰을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자동차로 2~3시간 걸리는 개성까지 마중 혹은 배웅을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동시 시찰이 어렵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 혹은 귀환 길에 단독으로 개성공단을 둘러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관계 통일부 차관은 전날 준비접촉을 마친 뒤 노 대통령의 개성공단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측이) 초청 측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협의를 할 수 있다”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 盧대통령 방북길 의전차량 BMW나 벤츠나

### 760Li-S600 중 '간택'될 듯

노무현 대통령이 28~30일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용차량을 타고 방북길에 오르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여러대의 대통령 의전차량중 어떤 차량이 '간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대통령 의전차량은 독일 BMW 승용차 중 최고급 모델인 760Li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의 S600,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방탄승용차는 BMW 760Li와 벤츠 S600 두 종류로 경호가 필요한 외부 공식행사에는 이들 차량을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방북길에 노 대통령이 탑승할 전용차량은 두 승용차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세계 각국은 경호안전상 국가원수용 승용차로 방탄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방탄차 생산능력이 없어 부득이 외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탑승하는 전용차량 외에도 이를 호위할 경호차량 수대로 함께 방북길에 오를 전망이다.

북측이 대통령 전용차량에 우리 경호차량까지 수행토록 한 것은 의전상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대통령 전용차량에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는 경호원을 우리측 요원들로 배치토록 허용한 것은 ‘파격중의 파격’이라는 것. 이처럼 우리 경호차량이 대통령 전용차량을 ‘콘보이’하고, 전용차량에 우리측 경호요원이 배치됨에 따라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해왔던 ‘경호 공백’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통상 어느 국가이든 해외에 나가면 국가원수에 대한 차량 경호는 상대국에 일임하는 것이 의전상 관례. 상대국에 경호를 일임하는 것은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北 평안남도 수재민 1만7천명 발생

북한 평안남도에서 최근 수해로 1만7천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평양방송이 15일 전했다.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리영남 사무장은 평양방송과 인터뷰에서 “며칠 사이(도) 안의 모든 지역 단위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받지 않은 데가 없다”면서 “적지 않은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생겼고 수재민이 1만7천명이 되고 살림집이 완전 파괴되거나 부분 파괴된 것도 엄청난 수를 헤아리고 있다”고 밝혔다.

리 사무장은 도내 곳곳의 도로와 다리, 철로, 전력·통신망이 파괴되고 여러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과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며 서해안 방조제까지 파괴돼 많은 논이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평안남도는 지난해 수해 때도 양덕·신양·성천군을 중심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북한 언론매체는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각지의 수해 및 복구 상황을 속속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유엔 통해 北 수해 지원 검토”

### 반기문 사무총장 “국제사회와 협력 지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집중호우로 수만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유엔 채널을 통해 어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순 매킨 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다

홍수로 극심한 인도주의적 재난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매킨 맥 대변인은 또 “북한이 유엔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 측 관계자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 유엔 측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실면서 재테크!**  
**동원2지구 우미린이 그 해답입니다**

우미리 아파트, 우미리 아파트, 우미리 아파트

**동원2지구 우미 Lynn**